

종교에 대한 인간주의적 접근과 종교학적 환원

— Daniel L. Pals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종천*

- I. 종교 연구와 환원의 문제
- II. 종교학적 설명과 사변적 환원주의의 극복
- III. 종교적 환원, 종교학적 환원, 사회과학적 환원

I. 종교 연구와 환원의 문제

종교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기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문제와 씨름해 왔다. '비교'와 '환원주의'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비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어반복'(tautology)의 성격을 지닌 개별종교의 고백적 자기 발언을 넘어서서 종교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요청하였고, '환원주의'(reductionism)의 문제는 종교현상이 지닌 '독자성'(sui generis character)을 무시한 채 종교현상을 '설명해 버림'(explain away)으로써 설명 대상을 없애버리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종교학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은 신학을 넘어서는 '반독단론'(anti-dogmatism)과 사회과학을 극복하는 '반환원론'(anti-reductionism)의 과제를 통해 이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

종교학이 환원론에 대한 극복을 학문의 자기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 삼아왔고, 그것을 위해 종교현상의 독자성이란 전제를 부각시켜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교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도리어 종교학이 극복하려고 했던 독단론적 측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²⁾ 1960년 독

* 한신대학교 강사

1)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서당, 1992), pp.25-33.

2) 최근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토론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특집이 '종교의 자율성 (autonomy)이 신학을 수반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1990년 간행된 『종교』(Religion)

일의 마르부르크(Marburg)에서 열린 국제종교학회(IAHR) 이후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환원주의의 불가피함을 역설하며 종교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의 설명을 강조하는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자들에 의해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 이론적 지식 구축보다 종교현상에 대한 적합한 이해(해석)의 창출을 중시하는 반환원주의적 종교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³⁾

그러나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와 종교학의 차이를 '설명 對 이해(해석)'과 '환원주의 對 반환원주의'의 대립구도로 보았던 기존의 통념적 관점은 1980년대부터 새롭게 전개되는 환원주의 논쟁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살펴보면,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해석하고 사회과학자들은 종교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종교학과 사회과학이 모두 종교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다를 뿐이며, 종교에 대한 설명도 반환원주의적일 수 있고 종교에 대한 해석도 환원주의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⁴⁾ 이러한 판단은 종교에 대한 설명도 반환원주의적일 수 있는 만큼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라고 해

제20집에 '집담회'(Colloquium) 형식으로 실렸는데, 여기에는 종교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Daniel L. Pals의 제안과 그것을 수정/지지하는 Lorne L. Dawson의 논의 및 이들의 관점에 대한 Donald Wiebe의 비판이 들어있다.

- 3) 강돈구, 「현대 종교이론의 쟁점 — 종교학의 非宗教化를 중심으로 —」, 『宗敎學研究』 11(서울大學校 宗敎學研究會, 1992), pp.79-105 참조 강돈구는 1960년대 이후 전개되는 현대 종교이론이 대체로 환원주의-설명-인식론을 강조하는 흐름과 반환원주의-이해(해석)-존재론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양분되며, 전자가 과학적 지식 획득을 위한 이론적 설명을 선호하는 반면, 후자는 종교적/철학적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구 종교학의 再神學化와 한국 종교학의 종교화/철학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4) 환원주의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사회과학과 종교학의 경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학문적 반성에서는,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자나 종교학자들 모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가 사회과학의 비환원적 가능성을 제기하는 종교학자들의 사회과학 무력화 전략을 비판하고 사회과학적 연구가 해석이든 설명이든 기본적으로 환원적이거나 또 환원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비환원적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의 가능성을 지지하며 사회과학적 환원주의와 더불어 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에서 엿보는 사변적 환원주의까지 포함하여 종교학 내부에 깃든 모든 환원주의를 극복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Robert A. Segal과 Daniel L. Pals가 각각 전자와 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 Robert A. Segal, "Reductio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in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Leiden: E. J. Brill, 1994; 이하 *Religion and Reductionism*으로 줄임), pp.4-14. Daniel L. Pals, "Explaining, Endorsing, and Reducing Religion: Some Clarifications," in *Religion and Reductionism*, pp.183-97.

서 반드시 환원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반환원주의적 설명과 환원주의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최근 환원주의의 논쟁은 주로 사회과학적 기반을 지닌 ‘환원주의자’(reductionist)들이 ‘신자’(believer)의 관점을 옹호하는 ‘종교주의자’(religionist)들의 학문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종교주의자들은 종교의 독자성과 환원불가능성(irreducibility)을 내세우며 환원주의자들이 논거로 삼는 신자/비신자의 관점, 승인(endorsement)/환원(reduction)이라는 이분법을 종교주의자/환원주의자의 구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⁵⁾ 이러한 논쟁은 시갈(Robert A. Segal)의 「환원주의 옹호」(In Defense of Reductionism, 1983)⁶⁾와 팔스(Daniel L. Pals)의 「종교는 독자적인 현상인가?」(Is Religion a *Sui Generis* Phenomenon?, 1987)⁷⁾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그에 대한 지지와 논박의 학문적 토론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종교 연구에서 종교의 독자성과 환원주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이룬다.⁸⁾

그런데 환원주의의 논쟁은 대체로 ‘환원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만 집중하면서, 종교학의 자기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축인 ‘비교’의 문제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쟁 가운데 수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환원주의의 논쟁은 종교

- 5) Robert A. Segal과 Daniel L. Pals가 각각 전자와 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 한편, 여기서 등장하는 ‘환원주의자’와 ‘종교주의자’라는 용어는 종교학에 사회과학적 환원주의를 적극 수용하는 학자들과 환원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전자가 종교주의자의 시각을 신자의 관점과 직접적으로 일치시켜 설명하고 비판하는 반면, 후자는 종교주의자의 시각을 신자의 관점을 분리시키는 호의를 보인다. 따라서 전자의 관점에 의하면 ‘종교주의자’라는 용어는 ‘신자’라는 말로 바꿔 써도 무방하고, 후자의 시각에서는 ‘종교주의자’는 ‘신자’가 아니라 ‘반환원주의자’(anti-reductionist)라는 말에 해당한다. 또한 대체로 전자가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를 종교학에 포함시키는 반면, 후자는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와 구분되는 종교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6) Robert A. Segal, “In Defense of Reductionis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이하 JAAR로 줄임) 51(1983), pp.97-124.
- 7) Daniel L. Pals, “Is Religion a *Sui Generis* Phenomenon?” *JAAR* 55(1987), pp.259-82.
- 8)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JAAR과 *Religion* 등의 종교학 잡지에서 Robert A. Segal과 Donald Wiebe를 중심으로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측과 Daniel L. Pals를 중심으로 종교현상의 독자성을 옹호하면서 환원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의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종교학 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논의는 1990년 11월 마이애미대학(Miami University)에서 열렸던 환원주의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단행본으로 묶여 출간되었다. Thomas A. I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eds.),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Leiden: E. J. Brill, 1994).

연구에서 부각되는 환원의 문제를 대체로 사회과학적 환원에만 국한시켰으며, 그에 따라 '종교학적 환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특히 종교의 독자성과 환원불가능성이라는 명제가 종교학적 환원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환원주의 논쟁에서 제시되는 종교주의자들과 환원주의자들의 구분 외에도 종교를 신앙고백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인들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자들의 차이점을 의식하여 종교의 독자성이란 명제에 '비교'의 안목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시각이 종교주의자라고 부르는 종교학자들이 견지하는 종교의 독자성과 환원불가능성이란 명제는 어디까지나 종교를 비종교적인 원인으로 환원시키는 사회과학적 환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종교'는 개별 종교 전통의 신자들의 믿는 신앙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종교'와 '기독교', 종교학의 '성스러움' 개념과 기독교의 '신'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비교'의 안목이 개입되어 있다. 개별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학에서 제시하는 환원불가능한 '종교' 개념은 환원적인 것이다. 개별 종교 전통의 현상이 지닌 독자성을 훼손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학의 환원불가능한 종교는,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 종교 전통의 환원불가능한 종교를 환원시킬 때 가능한 것이며, 종교학의 환원불가능한 종교의 독자성은 사회과학적 환원에 대한 것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독자성과 환원을 둘러싼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시각이 환원주의에 대립되는 입장으로 상정했던 신자들의 관점조차도 개별 종교 전통의 개념에 의거해서 설명이나 환원을 수행하고 있다. 팔스가 잘 지적했듯이, 신자들의 관점에도 일차적인 믿음과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이차적인 설명이 뒤섞여 있다.⁹⁾ 그리고 그러한 설명이 일반화되어 다른 종교들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다른 종교의 독자성이 훼손되는 종교적 환원이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기독교의 입장에서 제시되는 신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이분법에 의거해서 다른 종교를 불신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기독교의 선교신학이나 종교신학에서 그러한 종교적 환원의 실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다면, 종교 연구에서 환원의 문제는 개별 종교 전통의 신자가 전개하는 종교적 환원, 종교학자들이 제시하는 종교학적 환원, 양자를 비종교

9) Daniel L. Pals, "Explaining, Endorsing, and Reducing Religion: Some Clarifications," pp.193-94.

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환원으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원주의 논쟁에서는 주로 사회과학적 환원이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종교 연구에서 환원의 문제는 종교적 환원과 종교학적 환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팔스의 '인간주의적 접근'(humanistic approach)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인간주의적 접근이 지닌 몇 가지 이론적 함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종교학적 설명이 종교학적 해석과 종교학적 환원의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 환원이나 사회과학적 환원과는 다른 이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II. 종교학적 설명과 사변적 환원주의의 극복

1. 팔스의 인간주의적 접근

팔스는 종교의 독자성을 종교적 행위 주체의 능동성으로 이해하는 인간주의적 접근을 펼쳤다. 그는 종교를 의식적인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의 산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능동적인 작용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비인간주의적 환원을 비판하고, 종교학이 인간주의적 해석(humanistic interpretation)에 근거한 인간주의적 전통(humanist tradition)임을 강조하였다.¹⁰⁾ 이런 주장은 사회과학적 환원에 대한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행위 주체의 능동성을 무시하는 원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모든 '사변적 환원주의'(speculative reductionism)¹¹⁾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사변적 환원주의란 사회과학적 환원은 물론이요, 종교적 환원과 종교학적 환원까지 포함한 환원주의를 가리킨다.¹²⁾ 그리하여 팔스는 흔히 신의 섭리나 은총으로 서술되는 신학적 이론이나 오토(Rudolf Otto, 1869-1937)와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 등이 펼치는 종교성에 대한 주장들을 모두 사변적 환원주의

10) *Ibid.*, 특히 p.192. Daniel L. Pals, "Is Religion a *Sui Generis* Phenomenon?" pp.259-282. Daniel L. Pals, "Autonomy, Legitimacy,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20(1990), pp.1-16 등을 참조하라.

11) 팔스가 '사변적 환원주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가 반대하는 환원주의를 통칭하면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사변적 환원주의'에 대한 팔스의 비평은 종교학적 환원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비환원적 사회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옹호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의 범주에 포함시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팔스는 종교학적 설명이 사변적 환원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율성에 대한 '공리적 접근'(axiomatic approach to autonomy)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종교적 환원에서 보이는 '승인'(endorsement)이나 사회과학적 환원에서 보이는 '환원'(reduction)이 아니라 인간주의적 해석, 공감적 설명(empathetic explanation)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2. 설명과 환원의 구분과 비환원적 설명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설명과 환원의 구분이다. 팔스에 의하면, 환원이란 설명의 형식이며, '환원적 설명'(reductive explanation)은 이론적 위계질서를 설정하고 좀더 높은 위계에 있는 이론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좀더 낮고 기본적인 이론들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다.¹⁴⁾ 요컨대, 환원이란 분명하고 닫혀있는 이론적 위계질서를 전제하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환원은 설명의 부분집합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라 이론적 위계질서를 전제하지 않는 설명의 영역이 확보된다. 팔스는 그 영역을 인간주의적 해석에 기초한 '비환원적 설명'(non-reductive explanation)을 위해 배당한다.

그렇다면 비환원적 설명은 어떤 것인가? 환원주의란 종교를 종교 밖에서 비종교적 용어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고, 환원적 설명은 분명하고 닫혀있는 관계의 위계질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종교학에서 환원적 설명이란, 샤르마(Arbind Sharma)가 지적하듯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를 감수해야 하며, 연구대상인 인간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이론화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¹⁵⁾ 그러므로 팔스의 논리를 따르

13) 팔스의 공리적 접근에 대해서는 "Is Religion a *Sui Generis* Phenomenon?"을, 공감적 설명에 대해서는 "Explaining, Endorsing, and Reducing Religion: Some Clarifications"를 참조하라.

14) Daniel L. Pals, "Explaining, Endorsing, and Reducing Religion: Some Clarifications," pp.184-185. Daniel L. Pals, "Reductionism and Belief: An Appraisal of Recent Attacks on the Doctrine of Irreducible Religion," *The Journal of Religion* 66(1986), pp.21-22. 팔스는 느슨하게 쓰는 상식적 용어로서의 환원과 엄밀하게 적용하는 특수한 학문적 용어로서의 환원을 구분한다. 전자가 하나의 현상을 좀더 잘 설명하려는 목적을 지닌 모든 설명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지는 환원처럼 이론들간의 위계적 질서를 전제하고 한 이론의 문제를 다른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Ernest Nagel이 제시한 환원에 대한 설명을 수용한 것이다.

자면, 환원주의적 설명을 반대하는 비환원적 설명은 종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단
혀있는 이론적 위계질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종교의 독자성을 연구대
상인 인간의 주관성이란 측면으로 이해하면서도 객관적 설명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편적 범주로서의 종교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자-의도중심적 설명과 사변적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

팔스는 그러한 비환원적 설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동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비인간주의적 환원(non-humanist reduction) 안에 사회과학적 환원뿐
만 아니라 종교현상학의 비인간주의적 사변(non-humanist speculation)까지 포
함시켜 비판하였다. 그는 ‘사변적’(speculative)이라는 용어로 종교학적 설명도 비
인간주의적 사변으로 호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종교적 행위 주체의 능동성을 주
목하고 존중하여 설명이 지닐 수 있는 사변성의 위험을 극복하는 ‘행위자-의도중
심적 설명’(agent-intentional explanation)을 강조했다.¹⁵⁾

종교적 행위자의 의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종교적 환원과 사회과학적 환원을 모
두 경계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종교적 환원은 종교적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행위주체인 인간보다는 그 행위의 지향대상인
궁극적 실재에 대한 독단적 교의(dogma)의 일방적인 선포에 치우치기 마련인데,
참종교/비종교의 구분을 신의 은총에 대한 신앙/불신앙으로 설명하는 기독교 신학
의 경향은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과학적 환원은 종교
적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러한 의도를 형성시키는 사회적, 심리적 기반에만 주목
함으로써 종교적 행위주체의 능동성을 배제한다. 프로이트(G. Freud)류의 심리학

15) Arbind Sharma, "What is Reductionism?," *Religion and Reductionism*, pp.127-30.

16) 시갈과 위브는 팔스의 입장이 환원주의와 반환원주의라는 독단적 양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기 위해 독단(dogma)과 공리(axiom)를 구분하고 ‘독단 없는 공리’를 추
구하였으나 그것이 성공적인 구분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팔스는 인간주
의적 접근이 독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변적’(less speculative)인 것을 목표
로 함을 지적함으로써 비환원적 설명이 지닌 독단성이 아니라 사변성이 문제임을 강
조하였다. cf. Daniel L. Pals, Robert A. Segal & Donald Wiebe, "Axioms
Without Dogmas: Responses and Rejoinders," *JAAR* 59(1991), pp.703-713,
특히 pp.704-705, 709. 시갈과 위브의 비판과 그에 대한 팔스의 반박 및 시갈과 위
브의 재반박으로는 Robert A. Segal & Donald Wiebe, "Axioms and Dogmas
in the Study of Religion," *JAAR* 57(1987), pp.591-605. Daniel L. Pals,
Robert A. Segal & Donald Wiebe, *Op. Cit.*를 보라.

적 종교이론이나 막스(K. Marx)류의 사회과학적 종교이론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행위자의 능동성에 대한 강조는 초월적 신에게 설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신학적 전제나 종교적 행위자의 능동성을 부인한 채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버리는 사회과학적 경향에 대한 거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더 나아가 종교학적 설명이라도 사변성으로 인해 행위주체의 능동성을 해칠 때에는 역시 극복의 대상이 된다. 팔스는 종교학 내부의 비인간주의적 사변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엘리아데의 ‘초의식’(transconscious), 뮐러(Max Müller, 1823-1900)의 ‘종교적 능력’(religious faculty), 오토의 ‘누멘적인 것의 저장소’(receptacle of the numinous)라는 용어가 모두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된다. 팔스는 이러한 종교학적 설명은 모두 사변적인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려면 초의식적인 것이나 누멘적인 것에 대한 영구적인 관심이 아니라 ‘행위자-의도중심적인 설명’(agent-intentional explanation)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⁷⁾

이러한 관점은 종교를 종교 행위의 주체가 보이는 능동성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의식적인 산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종교를 신과 같은 의도의 지향적 대상이나 심리나 사회구조라는 의도의 배경적 원인이 아니라 의도의 주체와 그 능동성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현상의 경험적 자료와 그 구조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게 된다.

만약 종교 행위 주체의 능동성을 외면한 채 선형적 종교성(*religious a priori*)에서 종교의 독자성 혹은 환원불가능성을 찾는다면, 그러한 비인간주의적 설명은 사변적 환원에 빠지고 만다. 종교의 본질이나 기원을 찾을 때 환원적 방법은 종교의 특정 내용들을 본질적인 핵심 요소로 환원하면서, 그것을 “그것 없이는 종교가 종교일 수 없는” 환원불가능한 기초로 확인하고, 종교의 필수불가결한 핵심(*sine qua non*) 혹은 제1원리, 선형적 종교성을 밝히는 방법론적 노력으로 전개된다.¹⁸⁾ 따라서 팔스의 관점에 서면, 종교적 행위 주체의 능동성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의

17) 이런 강조점들은 Pals의 논문 곳곳에서 등장하는 공통 논지이지만, Segal과 Wiebe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서 좀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Daniel L. Pals, “Axioms without Dogmas: Responses,” p.705를 참조하라.

18) Walter H. Capps, 『현대 종교학 담론』(김중서 외 역, 까치, 1999), 서론 및 1장, 특히 p.17, 26ff. 캡스는 종교학에 학문적 탐구의 용어, 조건 및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 철학을 높이 평가한다.

근거가 되는 선험적 종교성을 찾는 모든 노력은 사변적 환원주의의 범주로 귀결되고, 그러한 사변적 환원주의는 비인간주의적 환원주의로 비판된다.

4. 종교의 자율성에 대한 공리적 접근과 종교학적 설명

팔스는 사변적 환원주의로 귀결되는 환원적 설명을 종교학적 설명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학적 설명 가운데 비환원적 설명 외에도 환원적 설명이 가능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팔스의 제안은 종교학적 설명을 해석적 설명과 환원적 설명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팔스는 비환원적 설명, 해석적 설명, 비사변적 설명, 행위자-의도중심적 설명을 종교학이 추구해야 할 인간주의적 설명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가 종교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한 공통기반이 될 만한 '공리'(axiom)를 상정하는 '공리적 접근'(axiomatic approach to autonomy)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공리적 접근이란 종교의 자율성에 대한 단힌 이론적 위계질서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환원적 설명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자의 의도를 존중함으로써 사변성을 걸러내려 하는 관점이다.

시갈과 위브(Donald Wiebe)에 의하면, 팔스는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완벽한 설명을 추구하는 '독단'(dogma)이 아니라 논박에 의해서 포기과 수정이 가능한 잠정적인 논리적 전제라는 뜻에서 '공리'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단 없는 공리'(Axioms without Dogmas)를 추구했으며, 선험적 비환원론(*a priori nonreductionism*)과 선험적 환원론(*a priori reductionism*)이라는 두 가지 독단론(dogmatism)을 모두 반대했다. 그가 라카토스(Imre Lakatos)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programs) 개념을 종교 연구의 모델로 적용하려 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⁹⁾ 그리하여 팔스는 '환원적'(reductive)이지도 '독단적'(dogmatic)이지도 않은 제3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공리적'(axiomatic) 접근방식으로 명명했다는 것이다.²⁰⁾ 시갈과 위브는 팔

19) Robert A. Segal and Donald Wiebe, *Op. Cit.*, pp.595-96. 시갈과 위브는 그러한 팔스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20) Cf. Robert A. Segal & Donald Wiebe, *Op. Cit.*; Daniel L. Pals, Robert A. Segal & Donald Wiebe, *Op. Cit.* 한편, 시갈과 위브는 팔스가 잠정적 설명의 포기 기준을 구체화하지 못해서 비환원주의의 공리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잠정적(provisional) 접근과 독단적(dogmatic) 접근의 구분, 성숙한 이론과 조숙

스가 엘리아데조차도 인간성(humanity)을 넘어서서 초의식적/누멘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비공리적 비환원주의(nonaxiomatic nonreductionism)에 빠졌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²¹⁾ 그러한 비판이 정당하다면, 팔스는 종교학적 설명 중에서 ‘공리적 비환원주의’(axiomatic nonreductionism)와 ‘독단적 비환원주의’(dogmatic nonreductionism)를 구분하면서 전자를 추구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공리적, 독단적, 환원주의, 비환원주의라는 용어들을 조합하면, 모두 네 가지 경우가 생긴다. 시갈과 위브의 논리대로라면, 팔스는 공리적 환원주의, 독단적 환원주의, 독단적 비환원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공리적 비환원주의만을 수용한다. 시갈과 위브의 비평에 의하면, 팔스의 논리에서 환원론이든 비환원론이든 선택성을 띠면 모두 독단론이 되고, 비환원주의로 분류되는 종교학의 설명은 공리적 비환원주의와 독단적 비환원주의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그들도 인정하듯이, 팔스는 공리적이란 말을 덜 독단적이란 뜻이 아니라 “덜 사변적”(less speculative)이란 뜻으로 쓴다. 따라서 공리적, 인간주의적 비환원주의와 구분되는 비공리적, 독단적 비환원주의를 언급하는 시갈과 위브의 관찰은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팔스가 공리적 비환원주의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논리는 종교학적 설명 가운데 사회과학적 설명에 나타나는 사변적 환원주의 뿐만 아니라 종교학적 설명에 나타나는 사변적 비환원주의가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독자성 혹은 환원불가능성을 쉽게 비환원주의의 대응어로 생각하는 것은 팔스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팔스는 공리적이든, 사변적이든 종교학적 설명을 비환원주의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대상으로 삼는 종교는 개별 종교 전통, 곧 신자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 등의 개별 종교를 넘어서서 보편적 범주로서의 종교이다. 따라서 종교의 독자성 혹은 환원불가능성이란 명제 역시 사회과학적 환원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요,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환원일 뿐이다. 종교학은 개별 종교의 독자성을 종교의 환원불가능성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신자의 관점은 종교주의자의 관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팔스가 언급하는 공리적 비환원주의는 사회과학적 환원주의에 대해서 종교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이므로, 개별 종교

한 이론의 구분, 다중원인론적 설명(multicausal explanation)과 단일원인론적 설명(monocausal explanation)의 구분을 병행시켰다고 보았다.

21) Daniel L. Pals, Robert A. Segal & Donald Wiebe, *Op. Cit.*, pp.710ff.

전통의 신자들이 요구하는 개별 종교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위계질서를 전제하는 사변적 환원을 종교학적 환원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인간주의적 해석과 종교학적 환원: “승인 없는 공감”과 “공감적 환원”

팔스의 논의를 수정하여 적용할 때, 사회과학적 환원과 종교학적 환원이 사변적 환원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종교학적 환원이 종교적 환원이나 사회과학적 환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인간주의적 해석과 종교학적 환원을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종교학적 설명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갈에 의해서 해석과 설명이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반드시 배타적인 것도 아니라는 치밀한 논증이 전개된 바 있다.²²⁾ 한편 팔스는 환원이 설명의 일부임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석과 환원은 상이한 설명의 양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종교학적 설명 가운데 해석적 설명과 환원적 설명을 구분이 가능해진다.

팔스의 인간주의적 해석은 종교학적 설명 가운데 환원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해석적 설명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종교의 독자성을 종교적 행위 주체의 의도와 연계해서 생각할 때, 신자와 학자 앞에는 해석과 환원의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환원에 대해서 ‘환원불가능한’ 종교의 독자성을 옹호하는 것이 해석적 설명의 몫이라면, 종교적 환원에 대해서 ‘비교의 지평을 확보한’ 종교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은 환원적 설명의 몫이다.

이를 종교적 행위 주체인 인간의 주관성과 종교라는 범주의 보편성 사이에 개재한 딜레마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회과학적 환원에 대해서 환원불가능한 종교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 주체인 인간의 주관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해 개별 종교를 넘어서는 비교의 지평을 확보하는 것은 종교의 범주적 보편성을 견지하려는 것이다. 종교가 신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보편적 범주로서의 종교에 대한 논의를 종교학의 사명으로 삼았던 크리스텐센(W. Brede Kistensen, 1867-1953)에게서 그러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²³⁾ 종교현상학자들이 종교경험의 기본 구조를 체계화하여 경험

22) Cf. Robert A. Segal, “Reductio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pp.6-11.

23) W. Brede Kistensen, *The Meaning of Religion*, tr. by John B. Carman(The

의 종교적 차원이 지닌 환원불가능(irreducibility)과 독특성(unicqueness)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⁴⁾

팔스가 제시하는 인간주의적 해석은 바로 해석적 설명에 해당한다. 그는 신자의 관점을 지지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신자의 관점을 무시하지 않는 종교학적 접근 방식을 ‘승인 없는 공감’(empathy without endorsement)²⁵⁾이라고 표현하였다. 분명히 종교현상학을 중심으로 한 종교주의자들은 종교현상을 특정한 개별적 종교전통에 국한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개별 종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종교 현상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類)개념으로서의 종교로 환원하는 셈이다. 종교주의자들은 신자들의 관점을 승인한 게 아니라 공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종교적으로 여기는 것과 종교학자의 종교 이해는 구별되어야 한다.²⁶⁾

시갈에 의하면, 신자의 관점이라는 기준으로 종교적 신앙을 승인하는 종교주의자와 그러한 승인을 반대하는 환원주의자 외에 제3의 길은 없다.²⁷⁾ 그는 엘리아데를 비롯한 종교주의자들이 ‘신자’ 내부의 용어로 종교를 이해했다고 보고, 엘리아데가 수행했던 해석의 행위와 신자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가 같은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에 대해 이디노폴로스(Thomas A. Idinopulos)는 엘리아데가 신자의 관점을 알지 못했으며, 종교학자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고 설명했다.²⁸⁾ 시갈은 대표적인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종교 경험의 환원불가능한 종교성’(the irreducible religiosity of religious experience)을 종교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종교주의자들은 종교 경험의 대상인 ‘성스러움’(the sacred) 자체

Hague: Martinus Nijhoff, 1960), p.6.

24) Arbind Sharma, *Op. Cit.*, p.132 참조

25) Daniel L. Pals, “Explaining, Endorsing, and Reducing Religion: Some Clarifications,” *Religion and Reductionism*, pp.183-197, 특히 p.191.

26) Thomas A. Idinopulos, “Must Professors of Religion be Religious? Comments on Eliade’s Method of Inquiry and Segal’s Defense of Reductionism,” *Religion and Reductionism*, pp.65-81. 비슷한 비판이 Thomas A. Idinopulo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디노폴로스에 의하면, 시갈은 지나치게 신자(believer)와 비신자(non-believer)의 구분을 첨예하게 만들었으며, 그것을 종교의 독자성과 성스러움의 실재를 수용하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 종교주의와 환원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서 환원주의를 옹호했다.

27) Robert A. Segal, “Reductio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참조

28) *Ibid.*, pp.75-81. 시갈에 의하면, 환원주의와 반환원주의의 대립은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에 기초해 있으며, 신자는 종교의 환원불가능성을 수용하고 비신자는 환원주의를 수용한다.

에 봉헌하는 신자의 관점에 빠져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종교주의자들은 신자의 관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신자들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갈은 샤르마와 크리스텐센이 신자의 관점은 무조건 옳다고 전제함으로써 연구의 주제와 주제에 대한 연구자를 혼동했다고 비판하고, 사회과학적 설명이 신자들에게 수용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은 종교주의자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인간주의적, 현상학적 접근은 그냥 “자료 모음”이 아니라 신자의 관점을 담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자는 연구의 주체가 아니라 봉헌의 주체로 다루어야 함을 역설했다.²⁹⁾

시갈의 이러한 비판은 신자의 관점과 종교학자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오류이다. 실제로 팔스의 인간주의적 접근은 종교적 환원과 종교학적 해석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분명히 독단적 설명(dogmatic explanation)을 통해 승인(endorsement)을 요구하는 종교적 환원과 인간주의적 해석을 통해 공감(empathy)을 표현하는 종교학적 해석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며, 공감도 없이 비종교적 원인만을 모색하는 사회과학적 환원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주의적 해석과 구분되는 종교학적 환원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종교적 환원이 종교적 신앙 내용의 승인이라면, 인간주의적 해석은 승인 없는 공감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종교학적 환원은 공감에 의해 확보된 보편적인 종교의 범주와 개념으로 환원적 설명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공감적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적 환원은 설명을 위한 개념과 틀은 공감에 의해서 확보하지만, 설명의 대상을 개별적인 종교현상은 물론이고 비종교적 현상에까지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종교현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사회과학적 환원이 사회과학적 이론의 위계질서 안에서 비종교적 원인으로 종교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종교학적 환원은 공감에 의해 마련된 종교학적 이론의 위계질서 안으로 종교 현상은 물론 비종교적 현상까지 포섭하여 보편적 범주 개념으로서의 종교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드컵 축구리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를 종교 또는 종교적 축제 개념과 틀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선거나 정치행사가 지닌 상징적 측면을 종교행위의 상징적 측면에서 비롯된 개념을 구사하여 설명하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를 예배를 드리거나 의례를 지내는 종교인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틀을 통해 설명하되, 스포츠나 정치행위, 영화관람 행위가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의

29) Robert A. Segal, "Religionists' Misconceptions: Replies to Sharma and Pals," *Zygon* 27(March, 1992), pp.107-111.

범주 아래로 포섭된다면, 그것은 종교학적 환원으로 비종교적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환원, 종교학적 환원, 사회과학적 환원의 이론적인 특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위브의 지적에 의하면,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설명적 환원주의’(explanatory reductionism)는 수용할 수 있지만 ‘서술적 환원주의’(descriptive reductionism)를 수용할 수는 없으며, 종교 경험의 주체가 종교적 용어로 경험을 서술할 때 비종교적 용어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은 그 경험을 오해하는 것이다.³⁰⁾ 또한 위브는, 종교적 환원과 생물학적 환원을 비교하면서 설명적 환원주의가 서술적 환원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팔스가 ‘서술적 환원주의’와 ‘이론간 환원주의’(intertheoretical reductionism)를 혼동했다고 비판하였다.³¹⁾ 실제로 팔스는 신자들이 ‘존재론적 환원주의’(ontological reductionism)에 반대하지만, 학자들은 ‘이론적 환원’(theoretical reductionism)에 반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 환원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위에서 언급된 용어 중에 서술적 환원주의와 존재론적 환원주의가 대체로 종교적 환원에 속한다면, 설명적 환원주의와 이론적 환원주의는 대체로 종교학적 환원과 사회과학적 환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팔스가 제안한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종교적 환원은 다른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환원시키면서, 믿음을 다른 것으로 환원하는 존재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서로 대치한다. 이에 비해 종교학적 환원은 이론적 차원에서 신자의 관점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환원에 대한 반대이다. 그러나 종교학적 환원도 신자의 관점 안-밖에 걸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환원이다. 이점은 사회과학적 환원과 마찬가지로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비종교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종교학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위브와 팔스의 용어가 서로 다른 함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양자가 공통되는 점은 개별 종교에서 쓰는 종교적 용어로 종교 일반을 설명하는 종교적 환원이 가

30) Cf. Donald Wiebe, "Postscript: On Method, Metaphysics and Reductionism," *Religion and Reductionism*, pp.123-124. Wayne Proudfoot, "Religion and Reduction,"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37, 1981-82, pp.13-25. Wiebe는 Wayne Proudfoot가 제시한 '서술적 환원주의'(descriptive reductionism)와 '설명적 환원주의'(explanatory reductionism)의 구분을 수용하고 있다.

31) Donald Wiebe, *Op. Cit.*, p.124 각주 10) 참조.

32) Daniel L. Pals, "Reductionism and Belief: An Appraisal of Recent Attacks on the Doctrine of Irreducible Religion," p.23.

능하며, 종교학적 환원은 서술적 환원주의와 존재론적 환원주의로 표현되는 종교적 환원과 달리 설명적 환원주의와 이론적 환원주의로 표현되는 환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개별 종교에서는 자기 전통의 관점이나 특정 신자의 관점에서 개별 종교 안의 현상과 그 밖의 현상들을 그 관점에 따라 모두 환원한다. 종교적 환원에서 고백적 발언과 자기반성적 인식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환원은 '고백적 환원' (confessional reductionism)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교학적 환원은 개별 종교 현상들을 일반적 범주로서의 종교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별 종교 자체의 관점을 여과시킨다. 따라서 고백적 발언을 넘어서는 '반성적 환원'(reflective reductionism)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적 환원이 고백적 발언에 공감하는 반성적 환원이라면, 사회과학적 환원은 고백을 완전히 배제한 '비평적 환원'(critical reductionism)이다. 따라서 종교적 환원이 고백적-승인적 환원이라면, 종교학적 환원은 반성적-비승인적-공감적 환원이고, 사회과학적 환원은 비평적-비승인적-비공감적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종교적 환원, 종교학적 환원, 사회과학적 환원

보통 사회과학적 환원주의가 종교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기존 종교학의 비판적 관점이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환원의 불가피성을 제기되었다. 환원은 기본적으로 한 현상 혹은 이론을 다른 현상 혹은 이론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비종교적인 것으로 설명해 버린다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학에서 주장하는 종교의 환원불가성과 독자성에 대한 논의는 개별 종교 전통의 신자적 관점에서 보는 종교와 보편적 범주로서의 종교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루어져 왔다. 개별 종교전통에서 보면, 종교학의 논의는 개별 종교전통의 현상과 개념 등이 지닌 독자성과 환원불가성을 침해하는 일종의 환원이다. 따라서 종교학적 환원의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흔히 비교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개별 종교와 일반 종교의 관계에 대한 종교학적 논의가 환원의 문제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함을 토론하고자 하였다. 특히 팔스의 인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

해서 종교학적 설명이 인간주의적 해석과 종교학적 환원의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고, 종교적 환원, 종교학적 환원, 사회과학적 환원이 지닌 상이한 이론적 성격을 음미해 보았다. 팔스는 종교학적 설명의 영역을 인간주의적 해석으로만 국한시켰지만, 이 글에서는 종교학적 환원을 통해서 기존에는 각각 종교적 환원과 사회과학적 환원의 영역이었던 개별종교적 현상과 비종교적 현상까지도 종교학적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종교 연구에서 종교적 환원, 종교학적 환원, 사회과학적 환원을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도 요구한다. 종교는 종교라는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 또는 설명하게 되는 실체적 실재 혹은 존재론적 실재라기보다는 특정한 시각 혹은 관점에 따라 구성되는 구성적 실재 혹은 인식론적 실재인 것이다.

참고문헌

강돈구, 「현대 종교이론의 쟁점 —종교학의 非宗敎化를 중심으로—」, 『宗敎學研究』 11, 서울大學校 宗敎學研究會, 1992, pp.79-105.

Idinopulos, Thomas A., "Must Professors of Religion be Religious? Comments on Eliade's Method of Inquiry and Segal's Defense of Reductionism,"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Leiden: E. J. Brill. 1994, pp.65-81.

Pals, Daniel L., "Reductionism and Belief: An Appraisal of Recent Attacks on the Doctrine of Irreducible Religion," *Journal of Religion* 66(1986), pp.18-36.

_____, "Is Religion a *Sui Generis* Phenomen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5(1987), pp.259-282.

_____, "Autonomy, Legitimacy,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20(1990), pp.1-16.

_____, "Autonomy Revisited: A Rejoinder to its Critics," *Religion* 20(1990), pp.30-37.

_____, "Axioms Without Dogmas: Respon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9(1991), pp.703-709.

_____, "Explanation, Social Science, and the Study of Religion: A Response to Segal with Comment on *Zygon* Exchange," *Zygon* 27(1992), pp.89-105.

_____, "Explaining, Endorsing, and Reducing Religion: Some Clarifications,"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Leiden: E. J. Brill. 1994, pp.183-197.

Segal, Robert A., "In Defense of Reductionis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1(1983), pp.97-124.

- _____, "Meaning and Caus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1988), pp.637-644.
- _____, "Misconceptions of the Social Sciences," *Zygon* 25 (1990), pp.263-278.
- _____, "Religionists' Misconceptions: Replies to Sharma and Pals," *Zygon* 27(1992), pp.107-111.
- _____, "Reductio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Leiden: E. J. Brill. 1994, pp.4-14.
- Segal, Robert A. & Donald Wiebe, "Axioms and Dogmas in the Study of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7(1987), pp.591-605.
- _____, "Axioms without Dogmas: Rejoin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9(1991), pp.709-713.
- Sharma, Arbind, "Humanistic versus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to Religion," *Zygon* 26(1991), pp.541-546.
- _____, "What is Reductionism?,"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Leiden: E. J. Brill. 1994, pp.127-142.
- Wiebe, Donald, "Explanation and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Religion* 5(1975), pp.33-52.
- _____, "Disciplinary Axioms, Boundary Conditions and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Comments on Pals and Dawson," *Religion* 20(1990), pp.17-29.
- _____, "Beyond the Sceptic and the Devotee: Reductionism in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Leiden: E. J. Brill. 1994, pp.108-116.

_____, "On Method. Metaphysics and Reductionism,"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eds. by Thomas A. Idinopulos and Edward A. Yonan, Leiden: E. J. Brill. 1994, pp.117-126.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서당, 1992.

Capps, Walter H., *Religious Studies - the Making of a Discipline*, 『현대 종교학 담론』, 김중서 외 역, 까치, 1999.

Idinopulos, Thomas A. and Edward A. Yonan (eds.), *Religion and Reductionism: Essays on Eliade, Segal, and the Challenge of the Social Sciences for the Study of Religion*, Leiden: E. J. Brill, 1994.

Segal, Robert A., *Religion and the Social Sciences: Essays on the Confrontation*, Atlanta: Scholars Press, 1989.